

單発音読クリニック 上トレ9 お化けクジラ

고려 초엽 박인량(朴寅亮)이 엮은 수이전(殊異傳)에 나오는 연오랑(延烏郎) 세오녀(細烏女) 설화는 한국의 유일한 태양신 설화다. 신라 아달라왕 4년(서기 157년) 동해 바닷가에 살던 연오랑 세오녀 부부가 각각 바위에 실려 일본의 한 섬에 도착해 그곳에서 임금과 왕비가 되었었는데 그 순간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는 변괴가 일어났다는 것이다. 그런데 당시 이들 부부가 타고 갔던 바위가 귀신고래의 등이었다고 한다.